

2021년 4월 2일

Weekly Macro, 무엇을 봐야 할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Economist 김유미 02) 3787-5161 / helloym@kiwoom.com

| RA 김지현 02) 3787-3761 / jeehyun12@kiwoom.com

키움증권

IMF 경제 전망과 연준의 정책 스탠스에 주목

다음 주 금융시장에서는 IMF 경제전망 수정 발표와 FOMC 의사록 공개에 주목할 것으로 예상함. 전반적인 경제지표의 개선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 낙관론이 확산되고 연준의 일부 긴축 신호가 나타날 경우 미국 금리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음.

IMF 경제전망 발표는 4월 6일에 있을 예정임. 지난 1월 올해와 내년 전세계 경제성장률을 각각 5.5%, 4.2%로 예상했었는데 최근 IMF가 블로그에 올린 글을 참고해보면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IMF 총재는 최근 미국 경기 부양 정책 등 추가적인 정책 지원과 다수 선진국이 백신으로 향후 경기 회복이 기대된다고 이로 인해 세계 경제가 더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언급한 바 있음.

지난 3월 OECD 전망보고서에서도 종전보다 올해 전세계 경제성장률을 1.4%p 상향 조정한 바 있으며 특히 미국에 대해서는 올해 6.5%로 종전보다 3.3%p 높였음. 이를 감안하면 IMF 역시 미국의 성장 전망치를 지난 1월에 이어 추가로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음. 이미 한국에 대해서는 종전 3.1%에서 3.6%로 상향 조정할 것임을 밝힌 바 있는데 소비 부진에도 상향 조정을 한 배경에는 수출 개선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임. 이는 결국 전세계 교역량의 회복과 수요가 개선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만큼 시장에서 경기 낙관론을 강화시킬 것으로 보임.

한편, 3월 FOMC 의사록도 공개될 예정임. 지난 3월 FOMC에서 성장과 물가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실업률을 낮추며 이전보다 긍정적으로 경기를 바라봤던 만큼 연준위원들의 경기와 물가, 그리고 통화정책 스탠스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점도표에서 대다수의 위원들이 2023년까지 정책금리 동결을 주장하며 큰 변화를 주지 않았지만 2022년과 2023년에 정책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위원들이 지난 해 12월보다 늘어났던 점을 감안해보면 내부적으로 통화정책에 대한 스탠스의 변화 조짐이 나타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바이든 정부의 1.9조 달러의 추가 부양 정책이 더해지고, 백신 보급이 예상보다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 상품가격의 강세 등 경기와 물가가 2/4분기 중 시장 예상보다 웃돌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연준은 일시적인 오버슈팅이라고 평가하며 인내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인프라 투자 계획까지 내놓으며 시장 내 인플레이션 기대가 높아지는 상황을 감안할 때 연준 내부의 작은 변화 조짐에도 금융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음.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미국 국채 금리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으며 경기 낙관론과 금리 움직임이 당분간 금융시장 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함.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등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임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제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2021년 4월 2일 | Weekly Macro, 무엇을 봐야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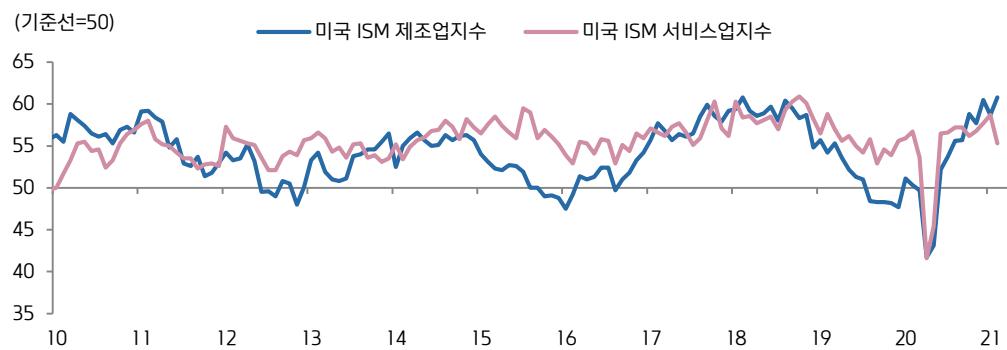
다음주 주간 매크로 이벤트 (4/5~4/9)

일자	주요 경제지표 일정 및 이벤트	컨센서스	이전치(잠정치)
4/5	미국 ISM 서비스업 PMI(3 월)	58.5	55.3
	미국 내구재 주문 MoM(2 월)	-1.1%	3.5%
4/6	EIA 단기에너지전망보고서	-	-
	중국 차이신 서비스업 PMI(3 월)	52.1	51.5
	유로존 센티스 투자자기대지수(4 월)	6.2	5.0
	미국 JOLTS 구인건수(2 월)	6,900k	6,917k
	IMF 경제전망 발표		
4/7	FOMC 의사록	-	-
	유로존 서비스업 PMI 확정치(3 월)	48.8	48.8
4/8	독일 공장수주 MoM(2 월)	1.2%	1.4%
4/9	중국 소비자물가지수 YoY(3 월)	0.2%	-0.2%
	중국 생산자물가지수 YoY(3 월)	3.5%	1.7%
	독일 산업생산 MoM(2 월)	1.5%	-2.5%
	미국 생산자물가지수 YoY(3 월)	3.8%	2.8%
연준위원 발언	시카고, 댈러스, 리치몬드 연은(7 일), 세인트루이스 연은, 파월의장(8 일)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금주 눈 여겨 봐야 할 지표

미국 ISM제조업지수와 비제조업지수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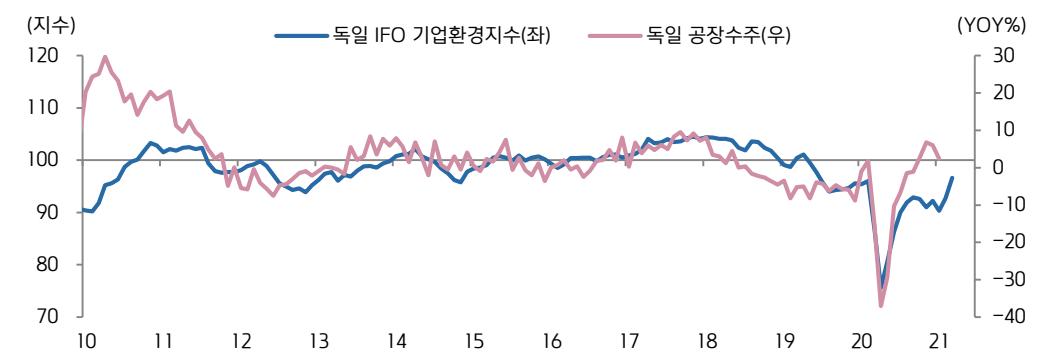
2021년 4월 2일 | Weekly Macro, 무엇을 봐야 할까?

중국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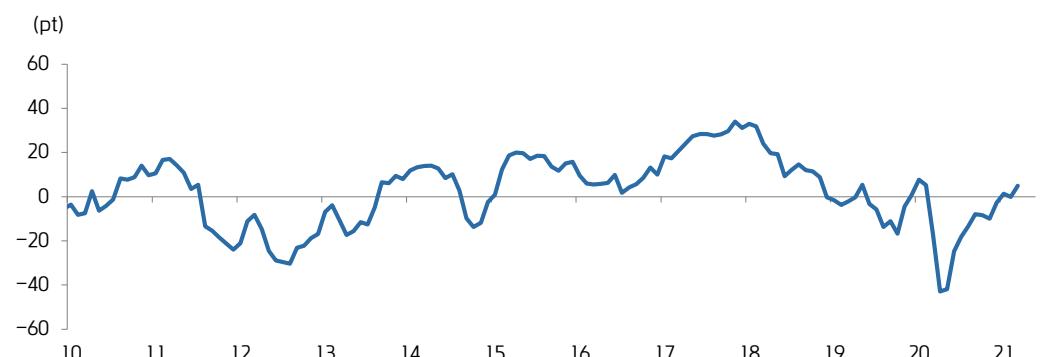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독일 공장 수주와 IFO경기기대지수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유로존 센티스 투자자지수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2021년 4월 2일 | Weekly Macro, 무엇을 봐야 할까?

금주 글로벌 경기 동향 및 이벤트 (3/29~4/2)

미국 3월 소비자신뢰지수, 바이든 행정부의 부양책 효과로 소비심리 큰 폭 개선

미국 3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는 109.7로 컨센서스(96.9)와 전월치(90.4)을 모두 크게 상회, 3개월 연속 상승하며 20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서프라이즈. 그러나 코로나 19 이전 수준인 120선에는 여전히 못 미치는 수준.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현재 경기현황에 대해 나쁨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전월 39.7%에서 30.5%로 감소. 또한 구직이 어렵다고 대답한 비율은 전월 22.4%에서 18.5%로 감소, 6개월동안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라고 대답한 비율은 27.4%에서 36.1%로 크게 증가. 한편, 6개월 내 주택구입계획이 있다고 대답한 비율은 전월 6.0%에서 8.4%로 증가.

집계측은 경기회복에 대한 소비자들의 낙관이 주택, 자동차 등의 상품에 대한 구매의욕을 부추길 것이라고 언급. 바이든 정부의 1조 9천억 달러규모의 재정부양책 통과 이후 지원금효과로 한계소비 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이전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의 증가가 예고된 가운데, 추가 인프라 투자 계획이 추진되며 2분기 인플레이션 압력은 강화될 전망.

중국 3월 제조업 및 비제조업 PMI, 4개월만에 반등하며 경기 회복 모멘텀 강화

중국 국가통계국 3월 제조업 PMI는 컨센서스(51.2)와 전월치(50.6)을 모두 상회한 51.9를 기록하며 4개월 만에 반등. 생산지수는 전월 51.9 → 53.9, 신규주문지수는 51.3 → 53.6으로 상승하며 경기확장 국면을 지속. 또한 고용지수는 전월 48.1 → 50.1을 기록하며 작년 4월 이후 처음으로 기준선 50 상회.

비제조업 PMI 역시 컨센서스(52.0)와 전월치(51.4)를 상회한 56.3으로 발표되며 마찬가지로 4개월 만에 반등. 서비스업 부문은 전월 50.8 → 55.2, 건설업 부문은 전월 54.7 → 62.3으로 큰 폭 상승. 연초 일부지역에서 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경제봉쇄를 단행하면서 1~2월 경제지표들은 다소 부진했으나, 춘절연휴동안 중단되었던 생산이 완전히 회복되면서 제조업 지표 상승을 이끌고, 서비스업 부문 소비가 증가한 점은 긍정적. 다만 중국 경기회복세가 강해질수록 유동성 회수 조치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며 투자 심리는 위축될 가능성.

미국 3월 민간 고용, 컨센서스 소폭 하회했으나 최대 증가폭 기록

ADP가 발표한 3월 미국 민간부문 고용은 전월치(17.5만건)을 크게 상회하며 20년 9월 이후 가장 큰 월간 증가폭을 기록했지만 컨센서스(50.5만건)에는 소폭 미치지 못한 51.7만건 기록. 업종별로 살펴보면, 서비스업 고용이 전월 18.7만건에서 43.7만건으로 20만건 이상 크게 증가하며 전체 지수 상승에 기여, 특히 레저 및 접객산업에서 전월대비 3배 이상 증가하며 두드러진 개선세를 보임. 건설, 제조, 광업 등의 제품 생산 분야에서는 8만건 증가.

민간부문 고용이 큰폭의 증가세를 보인 것에 이어, 현지시간 2일에 발표되는 미국 고용보고서 결과에 주목. 연준의 저금리 및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부진한 고용시장이기 때문에, 고용지표가 큰폭의 개선세를 보인다면 긴축의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우려 존재. 또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규모 인프라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은 고용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2021년 4월 2일 | Weekly Macro, 무엇을 봐야 할까?

금주 주간 매크로 이벤트 (3/29~4/2)

일자	주요 경제지표 일정 및 이벤트	발표치	컨센서스	이전치 (수정치)
3/29	미국 댈러스 연준 제조업활동지수(3 월)	28.9	16.8	17.2
3/30	유로존 소비자기대지수(3 월, 확정치)	-10.8	-	-10.8
	독일 소비자물가지수 YoY(3 월)	1.7%	1.7%	1.3%
	미국 컨퍼런스보드 소비자기대지수(3 월)	109.7	96.9	90.4
3/31	미국 FHFA 주택가격지수 MoM(1 월)	1.0%	1.2%	1.2%
	중국 제조업 PMI(3 월)	51.9	51.2	50.6
	중국 비제조업 PMI(3 월)	56.3	52.0	51.4
	유로존 소비자물가지수 YoY(3 월)	1.3%	1.4%	0.9%
	미국 ADP 취업자 수(3 월)	517k	550k	175k
4/1	미국 미결주택매매 MoM(2 월)	-10.6%	-3.0%	-2.4%
	OPEC+ 산유국 회의	-	-	-
	한국 수출 YoY(3 월)	16.6%	16.6%	9.5%
	중국 차이신 제조업 PMI(3 월)	50.6	51.4	50.9
	미국 ISM 제조업 지수(3 월)	64.7	61.5	60.8
	유로존 제조업 PMI 확정치(3 월)	62.5	62.4	57.9(62.4)
4/2	독일 제조업 PMI 확정치(3 월)	-	66.6	66.6
	한국 소비자물가지수 YoY(3 월)	-	1.5%	1.1%
	미국 실업률(3 월)	-	6.0%	6.2%
	미국 비농업고용자 수(3 월)	-	650k	379k
	미국 시간당 평균 임금 MoM(3 월)	-	0.1%	0.2%
연준위원 발언	뉴욕 연은(30 일), 필라델피아 연은(1 일)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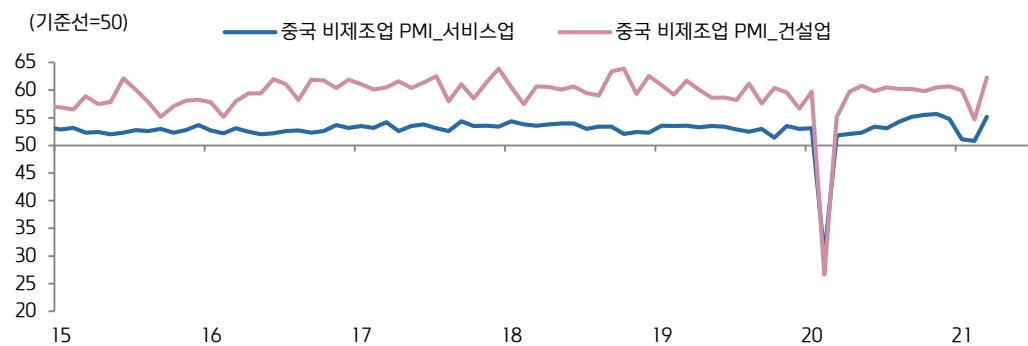
미국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와 미국 소매판매 증가율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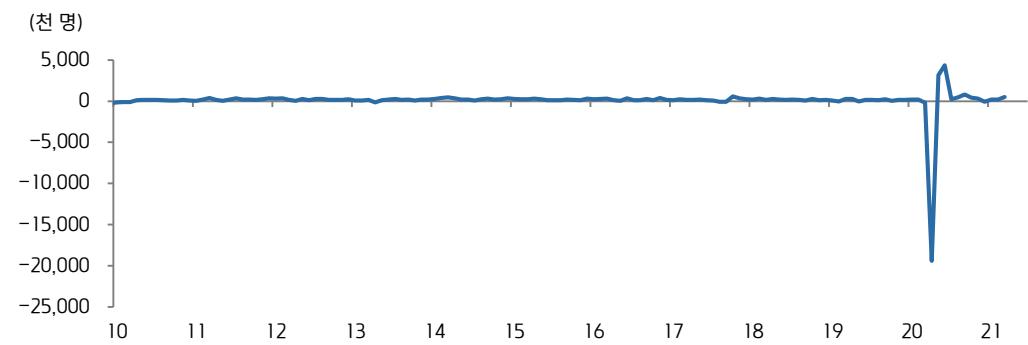
2021년 4월 2일 | Weekly Macro, 무엇을 봐야 할까?

중국 비제조업PMI 서비스업 및 건설업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ADP 민간 고용 추이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